

國內科學賞의 實態와 問題

우리나라 科學力의
기폭제 되기를 기대



美 信 龜
〈京鄉新聞 文化部長〉

어느 사회나 조직이던 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길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고 공평하게 해서 논공행상을 하는 것일 것이다. 특히 창조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과학자들의 사기를 돋구어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의 연구관리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잘못되었을 경우 오히려 사기를 낮추는 결과를 낳기 쉽다.

특히 과학기술분야는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 '賞'은 자칫 역작용을 부르는 요소가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대상이 마련된 것은 한국과학계의 앞날을 위해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 科學분야賞은 13개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모두 13개이다. 이들 상제도를 설립순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것은 서울시 문화상이다. 이 상은 1948년에 설립, 인문, 자연, 문학, 음악, 연예 등 10개 분야에 걸쳐 시상하고 있다. 상금은 각 2백 80만원이다.

1955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학술원상은 학술원 11개 분과중 6개 분과에서 수상자들을 선발 시상을 해오고 있다. 대통령상에는 1천만원, 회장상에는 5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있다.

또 1960년에 시작된 삼일문화상은 학술, 예술, 기술, 근로에서 수상자를 골라 상을 주고 있는데 상금은 각 5백만원이다.

1966년부터 설립된 5.16민족상은 학술, 산업 부문에서 6명을 골라 상을 주고 있는데, 상금은 7백만원이다.

과학계에서 가장 큰 상인 대한민국과학기술상은 1968년에 설립, 과학, 기술, 기능, 봉사 등 4개부문에 걸쳐 시상하고 있는데, 대통령상의 상금은 각각 5백만원이다. 또 1975년에 설립된 중앙문화상은 중앙일보가 주축이 되어 학술, 예술등 2개 분야에 걸쳐 시상을 하고 있는데, 상금은 개인이 5백만원, 단체는 7백만원이다.

또 1973년에 시작된 수당과학상은 자연과학

분야의 1 명에게 금상(3 백만원)을 주고 있고, 매일경제 창립자인 故 정진기씨를 기리기위해 1983년에 설립된 정진기문화상은 과학기술, 경제분야에서 2 명을 선발, 대상(1천만원)과 장려상(3 백만원)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과학기자클럽이 1985년부터 수여하는 '올해의 과학자상'(금메달)이 있다.

◇대부분 과거 功績에 초점

이들 시상제도들은 1~2 개를 제외하고는 업적보다는 과거의 공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이 갖고 있는 「잘하는 사람을 고무해준다」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또 대부분의 시상제도가 독자적인 조사보다는 공적심심사에 그치고 있어 자칫 자천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이들 시상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추천의 과정을 갖고는 있으나 거의가 자천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심사과정 또한 업적평가 보다는 공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나누어 먹기'라는 인상까지 받고 있다.

2 년전에 대상을 받은 한 과학자는 “해 놓은 일도 없어 상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후배들이 억지로 떠미는 바람에 반 자천으로 상에 응했다”면서 “수상후보가 공적서를 꾸미게 하고 상을 주는 제도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꼬집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상후보자 자신이 공적서를 꾸미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한창 업적을 내는 과학자들

大賞을 받은 한 科學者는 受賞 후보자가 공적서를 꾸미게 하고 상을 주는 제도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는 현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세계적인 업적을 낸 과학자에게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주는 과학대상이 설립된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도 일과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하지않는 경향마저 있는 형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상후보는 거의 원로들이 차지하여 거의 모든 상이 '공로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연구들을 수집, 평가해서 상을 주는 노벨상 등과 같은 외국의 상과 달리 우리나라의 상들은 현재 보다는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자니 자연히 상의 권위는 떨어지고 「그 상이 그 상」이라는 인상만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인 업적을 낸 과학자에게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주는 과학대상이 설립된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과거 응용에 치우쳐와 등한시됐던 기초과학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설립된 이 상은 우리나라 과학력을 향상시키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公正·合理的인 調查評價를

이 賞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서 살펴 보았듯이 수상자를 가리는데 앞서서 해서는 안 되고, 노벨상처럼 독자적인 조사평가를 통해 해야 될 것이다. 또 평가도 공정성과 권위를 지녀 과학자가 이 상만 타면 더 바랄게 없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상의 해당 분야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에 국한시키고 있는데, 이런 제한을 두지 말고 기초나 공학, 의학을 가릴 것 없이 세계 학계에서 각광을 받는 연구이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